

大韓齒科醫師協會

# 第32次 代議員定期總會 盛了

代議員 198名中 129名參席, 4月 9日 유성관광호텔에서

◎ 총예산 총규모 3억 7천 3백여만원 책정

◎ 정관일부개정(회장 자유입후보제 및 학술이사제 신설)



△ 회원현황파악철저, △ 제몽활동강화, △ 부정의료행위근절, △ 정화사업 적극추진, △ 회원연수교육강화, △ 치과 전문의 시험실시, △ 회원 연수교육 강화, △ 치과의료인력 적정수급책 강구, △ 협회운영 내실화, △ 의료보험제도 개선, △ 치의신보 순간발간등 사업 계획안 확정.

## 協會大賞에 丁達秀會員(全南·光州)

서울치대 3회 출신이며, 30여년간 치과의학계 단체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는 丁達秀회원에게 1983년도 협회대상(13회)이 수여 되었다. 더구나 「치과의사윤리」를 초안 채택하도록 제안, 치과의사 윤리가 제정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.

## 10억 基金등으로 150만원 寄託

올해 정기총회에서 協會大賞功勞賞을 수상한 丁達秀前齒協감사가 회관신축을 위한 10억 기금으로 50만원, 한국구강보건협회에 50만원, 광주로타리클럽 장학기금으로 50만원등 1백50만원을 선뜻회사했다. 1백50만원을 회사한 丁達秀씨는 「齒協의 발전에 초석이 될 각오로 기탁한다」면서 전국회원들의 총화와 참여를 촉구했다.

